

## 두 가지 복수형의 의미 차이에 대하여

강범모\*†

고려대학교

**Beom-mo Kang. 2008. On the Semantic Differences of the Two Plural Forms in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12.2, 115–137.** We examine the meanings of two plural forms in Korean. Kwak (2003) and Jun (2004) claimed that unmarked (i.e. zero) plural forms denote groups and ‘deul’ plural forms denote sums, and Kang (2007) indicated problems in such claims. Soon after, Jun (2007) raised an objection to Kang’s view by slightly modifying his former analysis, and now this paper is a reply to Jun (2007). Jun’s revision of his former view is one step forward but still it is faced with many authentic counter examples. In the mean time, Noh (2008) raised an objection to Kang (2007) from a totally different direction, claiming that unmarked forms are not plural but only singular. This position is not sound, either. We have so many cases where unmarked forms are used with plural interpretation. All in all, our view that unmarked forms denote singular as well plural individuals(sums, groups) and ‘deul’ forms denote only plural individuals(sums, groups) is to be maintained. (Korea University)

**Key words:** 복수 (plural), 복수성 (plurality), ‘들’ 복수형 (‘deul’ plural), 무표 복수형 (unmarked plural), 합 (sum), 집단 (group), 배분성 (distributivity), 집단성 (collectivity), 함축 (implicature)

### 1. 서론

한국어의 명사 ‘학생’은 ‘한 학생’, ‘두 학생’과 같이 의미적 단수 혹은 복수의 개체(들)를 가리키기 위하여 쓰일 수 있다.<sup>1</sup> 반면에 복수형인 ‘학생들’은 복수의 개체들만

\*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1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E-mail: bmkang@korea.ac.kr

† 이 논문 내용의 일부는 2008년 4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와 콜로퀴엄에서 발표되었다. 남승호, 신효필 교수를 비롯하여 질문과 조언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제출 논문에 대한 논평과 제안을 주신 「언어와 정보」 심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강범모 (2007)에 대한 전영철 (2007)과 노은주 (2008)의,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반론들에 대한 재반박이다. 강범모 (2007)의 주장을 2절에서 아주 간단히 요약하였고, 이후 전영철과 노은주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그 주장의 세부 내용이 간헐적으로 다시 제시된다. 복수 논의의 세부적인 배경을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므로 이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을 반복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았다. 독자의 필요에 따라 강범모 (2007)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sup>1</sup> 하나의 표현이 단수와 복수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인도네시아어 (Chung, 2000), 중국어 (Lin, 1998), 일본어 (Nakanish and Tomioka, 2004) 및 다른 많은 언어에서도 나타난다 (Corbett, 2000; Haspelmath,

을 가리킬 수 있다. 강범모 (2007)는 Kang (1994)을 확장하여 무표 복수형(무표형의 복수적 사용)과 ‘들’ 복수형의 의미 차이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것을 위해 이 두 가지 복수형의 의미 차이가 적어도 Kwak (2003)과 전영철 (2004)이 주장하듯이 복수의미론(Link, 1983; Landman, 1989)의 집단(group) 대 합(sum)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이후 전영철 (2007)은 다시 강범모 (2007)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이전의 주장, 즉 두 가지 복수형이 집단과 합의 차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글에서는 강범모 (2007)에서 제기된 문제가 전영철 (2007)에서 충분히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동원하여 재차 반론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 무표형이 복수형으로 쓰일 수 없고 단수형으로만 쓰인다는 주장을 한 노은주 (2008)의 주장에 대하여 논의한다.

앞으로 논증할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영철 (2007)과 같이 무표 복수형이 집단을 지시하고(따라서 집단적이고) ‘들’ 복수형이 합을 지시한다는(따라서 배분적이라는) 입장은 실제 용례를 볼 때 유지하기 어렵다. 둘째, 노은주 (2008)와 같이 무표형이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거나 잘못된 논증이다. 따라서 강범모 (2007)와 같이 한국어 명사의 무표형은 단수와 복수를 모두 아우르는 형태이며, 무표 복수형(무표형이 복수적으로 쓰이는 경우)과 ‘들’ 복수형은 모두 집단과 합을 지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 2. [무표 복수형 = 집단], [‘들’ 복수형 = 합]?

여기서는 강범모 (2007)에서 제시한 논의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단, 집단과 합의 개념을 Landman (1989), Landman (2000)이 사용할 때, 그는 집단을 집단적(collective) 해석, 합을 배분적(distributive) 해석과 관련시켰다는 점을 먼저 언급한다.<sup>2</sup>

Kwak (2003)과 전영철 (2004)이 무표 복수형은 집단을 가리키고 ‘들’ 복수형은 합을 가리킨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제시한 예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sup>3</sup>

(강8) 학생들이/#학생이 각자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

(강9) 엄마가 아이들에게/#아이에게 풍선을 하나씩 주었다.

2005). 이 논문에서 말하는 한국어의 ‘무표 복수형’은 무표 단수형과 대립되는 무표 복수 형식이 아니라, 무표형의 복수적 사용을 의미한다. 즉 무표형은 단수와 복수의 의미를 가지는 중의적 표현이 아니다.

<sup>2</sup> Link (1983)가 복수에서 합(sum)을 도입한 이래, 영어 복수 의미에 관하여 Gillon (1987), Lasersohn (1995), Schwarzschild (1989), Schwarzschild (1996) 등의 논의가 있었다. 한국어에 관하여 이남순 (1982), 임홍빈 (2000) 등의 논의가 있었고, Link의 복수의미론 관점에서 Kang (1994), 강범모 (1999), Kwak (2003), 전영철 (2004) 등이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언급할 ‘합’과 ‘집단’의 정확한 해석은 Landman을 따른다. 실제적인 적용에서 ‘walk, laugh’와 같이 배분적 술어와 결합하는 복수는 합, ‘gather’와 같이 집단적 술어와 결합하는 복수는 집단을 가리킨다. 물론 ‘committee’와 같이 집단의 집합을 지시하는 집단 명사도 있다.

<sup>3</sup> 이하 (강n)은 강범모 (2007)의 예문 (n)을, (전m)은 전영철 (2007)의 예문 (m)이다. 단, 전영철 (2007)의 ‘(m)가’, ‘(m)나’는 일관성을 위하여 ‘(m)ㄱ’, ‘(m)ㄴ’로 바꾸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이상한 것을 강범모 (2007)는 무표형이 한정적으로 쓰이면 단수 개체를 가리키게 되고 따라서 배분의 ‘씩’이 쓰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학생이 각각 질문을 하였다’).<sup>4</sup> 다음과 같이 복수가 분명한 예에서는 무표형 (무표 복수형)이 배분적으로 쓰일 수 있다(이하, 예문에 ‘[ ]’가 표시된 것은 1000만 어절의 세종말뭉치 용례임).

(강12) ㄱ. 학문을 하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가 하는 학문의 의의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제 연구의 방법을 바로잡고자 한다.

ㄴ. 일찍 들어오는 사람은 [각자] 알아서 밥도 차려 먹고 설거지도 하고 또 바쁜 사람 위해서 커피도 끓여주고....

ㄷ. 국민 [각자] 각자가 행사나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허리를 구부러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의 주연 배우’로 변해야 한다는 취지다.

ㄹ. 30리 떨어진 수덕사 소풍길도 전교생이 [각자] 먹을 쌀을 싸메고 걸어갔다.

(강13) 그새에 나는 맥주가 많이 생겼다고 박물관 [직원에게 한 병 반씩] 나누어 먹이고 나서 한 병도 남은 것이 없어 웃은 일이 있습니다.

(강14) 교장이 우등생에게 상품을 하나씩 주었다.

‘씩’이라는 배분적 표현이 없더라도 배분적 술어가 쓰인 다음과 같은 예들도 마찬가지이다.

(강21) ㄱ. 미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을 옛날보다 [많은] 사람이 감상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ㄴ. 이 문제는 너무나 민감한 문제라서 [많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린다.

ㄷ. 목 없는 나상(裸像) 두 개를 세워두어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고 있다.

ㄹ. 각종 외국어 습득기간으로 최적기이며, [많은] 사람의 경우에 있어 최후의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표 복수형이 집단을 가리키고, 따라서 배분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강범모 (2007)는 ‘들’ 복수형이 배분적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쓰일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들’ 복수형이 반드시 합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였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 그것을 보여준다.

<sup>4</sup> 강범모 (2007)에서는 무표형에 대하여 ‘한정적’(definite) 해석만을 언급하였으나, ‘특정적’(specific) 해석도 존재하며, 후자도 전자와 동일한 특성을 보인다(‘#어떤 학생이 각각 질문을 하였다’).

## (강22) ㄱ. 아이들이 모였다

- ㄴ. 군인들이 성을 포위하였다.
- ㄷ.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한다.
- ㄹ. (그 대학교에는) 교수들이 100명이다.

모이거나, 포위하거나, 서로를 존중하거나, 100명인 것은 한 개체가 할 수 없고 집단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들은 ‘들’ 복수형이 집단성을 보이는 문장에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많은’과 같은 수량사가 들어가 복수를 표현할 때에도 ‘들’ 복수형과 무표 복수형이 모두 집단적 술어와 쓰일 수 있다.

## (강23) ㄱ. 조상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술의 정취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끔 만들고 싶은 것이 두 사람의 첫 번째 욕심이다.

- ㄴ. 대통령 당선자와의 대화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대화 내용을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ㄷ.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날마다 사람들은 세호의 돌토끼와 라이터 앞에서 민이 할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 (강24) ㄱ. 신문으로 최근의 중앙일보를 꼽는데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다.

- ㄴ. 작년까지만 해도 천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모여 성대하게 파티를 하고 노 전 대통령께서는 “6.29는 명예혁명이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는데, 1년 사이에 이토록 변하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ㄷ. 중석기 문화 단계까지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에는 식량을 갖추기가 어려웠는데,
- ㄹ. 그 물건을 기차나 자동차, 배나 비행기로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곳으로 싣고 간다.

따라서 ‘들’ 복수형이 합을 나타내고 따라서 배분적으로만 쓰인다는 (즉, 집단적 술어와 쓰일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이상이 [‘들’ 복수형 = 배분적], [무표 복수형 = 집단적]이라는 등식을 주장하는 Kwak (2003)과 전영철 (2004)의 이론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보인 강범모 (2007)의 요지이다.

### 3. 무표 복수형과 배분성

위와 같은 강범모 (2007)의 논증에 대하여 전영철 (2007)은 그의 이론을 확장하여 그의 이전 입장을 유지하고자 시도한다. 그는 “합과 집단의 개념에 기대어 ‘들’-복수형을 배분성에 그리고 영-복수형 [무표 복수형]을 집단성에 일대일로 대응시킨 이전의 연구들에 대한 ... [강범모의] 지적은 타당한 것 같다”(전영철, 2007, 330)라고 하면서 좀더 세련된 논의의 필요를 인정한다.

우선, 무표 복수형이 배분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보인 예들인 (강12), (강13), (강14), (강21)에 대한 그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양화란 수를 헤아림을 뜻한다. 수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우리가 개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개별성은 배분성과 연결된다.” (전영철, 2007, 330)

즉, ‘모든’이나 ‘많은’과 같은 명시적인 수량사, 그리고 의미 속에 전체의 뜻이 들어 있는 ‘국민’, ‘전교생’은 무표 복수형이라도 양화적 요소로 인하여 배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무표 복수형이 원칙적으로 집단을 가리키지만 양화적 요소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배분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설명 방식이 전영철 (2007)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만 앞지만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무표 복수형 자체는 집단을 가리키지만 양화적 요소가 그것을 다시 합으로 전환한다. 혹은 둘째, 무표 복수형 자체가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Kwak (200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영형의 집단 형성 한정사가 존재하고 그것이 무표형 앞에만 붙는다.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강범모 (2007)에서 이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다른 수량적 한정사가 없는 무표 복수형 앞에 영형 집단 형성 한정사가 붙을 수 있다면 수량적 한정사가 없는 ‘들’ 복수형 앞에도 그것이 붙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형의 집단 형성 한정사가 있을 때에만 집단적 해석이 가능하다면 ‘많은’과 같은 수량사가 붙은 무표형과 ‘들’ 복수 명사가 집단적으로 쓰이는 경우(‘많은 학생들이 모였다’) 문제가 있다. 첫 번째와 같이 무표 복수형이 집단을 지시하지만 그것이 수량사에 의해 합으로 전환된다면 무표 복수형을 집단으로 상정하는 것의 의의가 반감될 것이다.

또 하나의 이론적 문제점은 ‘많은’과 같은 양화사가 명사에 붙어서만 나오지 않고 술어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학생이 많다’와 같은 문장조차도 ‘학생’이 집단을 가리키지만 술어의 ‘ 많다’ 때문에 ‘학생’이 다시 합을 가리키는 것인지, 혹은 이 경우에는 ‘학생’이 그냥 집단을 가리켜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이와 같은 이론적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양화적 요소가 보이지 않는 (강12나)(‘일찍 들어오는 사람은 각자 알아서 ...’, (강13)(‘... 박물관 직원에게 한 병 반씩 나누어 먹이고 ...’, (강14)(‘교장이 우등생에게 상품을 하나씩 주었다’)와 같은 예들이다. 전

영철은 (강12나)과 (강14)를 그의 이론에서 설명하고 있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다.<sup>5</sup> 두 예문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13)의 예문도 분명히 전영철 (2007)의 (확장된) 이론에 대한 반례이다.

전영철 (2007)이 이러한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이것이 전체 이론적 일관성에 비추어 작은 부분임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문제이다. 반면에 무표 복수형과 ‘들’ 복수형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동일시하는 강범모 (2007)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예들이 쉽게 설명된다. 즉, 무표형은 단수와 복수를 모두 가리킬 수 있지만, 다른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 같이 쓰이지 않는 이상 복수를 가리킬 때 ‘들’ 복수형이라는 명백한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수이기 때문이라는 화용적 함축이 작용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명시적인 양 표현이 없어도 복수임을 알 수 있다. 우등생은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무표형으로도 복수가 가능하다(강14). ‘#엄마가 아이에게 풍선을 하나씩 주었다’(강9)가 어색한 것은 아이가 여러 명이라는 전제가 없는 이상 단수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엄마는 아이를 세 명 데리고 나왔다.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풍선을 하나씩 사 주었다’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 4. ‘들’ 복수형과 집단성

무표 복수형은 집단을 지시하고 ‘들’ 복수형은 합을 지시한다는 이론을 구하기 위하여 전영철 (2007)이 좀 더 많은 논의를 할애하고 있는 것은 ‘들’ 복수형이 집단적 의미로 쓰인 (강21)~(강24)의 예문들이다. 그는 예문들에 나타나는 집단적 술어들을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sup>6</sup>

##### (1) 집단적 술어의 유형

- A. 집단적 행동 술어: 모이다, 포위하다
- B. 상호적 술어: 서로 존중하다
- C. 협동적 술어: 공감하다,

A 부류의 술어는 맨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B와 C 부류의 집단적 술어들을 살펴보자. 우선 B의 술어들은 상호적으로 그 의미상 이미 양화의 의미를 일부에 포함하며(Heim, Lasnik, and May, 1991), 따라서 배분적이다. 그렇다면 (배분성과 관련된) 합을 지시하는 ‘들’ 복수형이 나타나는 것은(강22나.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한다’)

<sup>5</sup> (전영철, 2007, 주 3) “이와 관련하여 강범모 (2007)에서 제기된 모든 의문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반례들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sup>6</sup> 이 절에서는 전영철 (2007)이 불가능하다고 제시한 예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됨을 보이는 일이 추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집단적 술어 중 그가 제시한, 의미적 개별성이 숨어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술어들은 어떤 면으로든지 다른 전형적인 집단적 술어(‘(큰) 집단이다’, ‘100명이다’)와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여지가 있다(‘각자 모였다’ 등). 이 점에서 전영철 (2007)의 유형화는 가치가 있고 앞으로 좀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배분적 특성을 가지는 술어에 집단을 지시하는 무표 복수형 주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전16) ㄱ. 학생들이/#학생이 서로를 알아보았다.

ㄴ. 애들이/#애가 다투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이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항상 복수 주어를 요구하는 것이 집단적 술어인데 상호적 술어들을 배분적 술어로 파악한다면 항상 복수를 요구하면서도 배분적인 특수한 종류의 술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배분적 술어는 일반적인 배분적 술어와 달리 합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적 개체가 문제의 술어를 가지고 있다는 누적적 특성을 가지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군인들이 죽었다’가 참이고, 군인들이 김, 이, 박이라면 ‘김이 죽다’, ‘박이 죽다’, ‘이가 죽다’가 모두 참이다. 그러나 ‘군인들이 서로 다투었다’가 참이더라도 (군인들이 김, 이, 박일 경우) ‘김이 서로 다투었다’ 혹은 ‘이가 서로 다투었다’ 혹은 ‘박이 서로 다투었다’가 참일 수는 없다.

이러한 이론적 문제가 아니더라도 강범모 (2007)의 입장에서도 (전16)의 예들은 쉽게 설명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회용적으로) 무표형은 단수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단수 주어에 상호적 술어가 쓰일 수는 없다. 그러나 회용적으로 복수의 상황이 주어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2) ㄱ. 우리 부부는 아이 셋을 낳았다. 우리 애는 (모두) 다투었다.

ㄴ. (그 아들 많은 집 있지?) 그 집 애는 (다) 다투어.

아울러 다음과 같이 상호적 술어가 쓰이고 무표 복수형을 주어로 가진 예문들이 많이 존재한다(세종말뭉치).

(3) ‘서로’

ㄱ. 돌턴은 뉴턴의 설명대로 원자가 [서로] 반발한다면 여러 가지 원자가 섞여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ㄴ. 물리학자는 원자 사이의 힘에 의하여 만들어진 분자가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연구하는 화학자와 손잡고 일하고 있다.

ㄷ. 우리가 [서로] 적대하는 그 원인과 이유가

ㄹ. 난 바다에서 파도가 [서로] 만나 부서져 휘날릴 때마다 아내의 강렬한 체취(體臭)를 연상하게 되고,

- . 거대한 대양 한 가운데서 세계가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4) ‘답다’<sup>7</sup>

- ㄱ.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답는다는데, 사랑의 전설을 지닌 꽃 작약도 생김새가 모란과 비슷하다
- ㄴ. 내가 보기에도 우리 두 사람은 너무 많이 [답아] 있는 것이다.
- ㄷ.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의 삶이란 비슷비슷하게 마련이고, 모든 사람의 사고 방식도 서로 [답아] 가게 마련이고,

C 부류의 협동적 슬어는 전영철 (2007) 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공’, ‘함께’는 부분을 모아 덩어리를 만들며, 따라서 배분성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다음과 같이 ‘동시에’, ‘일렬로’ 같은 표현도 부분을 모아 덩어리를 만드는 배분성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을 가리키는 무표 복수형과 함께 사용될 수 없다고 한다.

(전 17) ㄱ. 학생들이 /# 학생이 동시에 도착했다.

ㄴ. 군인들이 /# 군인이 일렬로 행군한다.

우선, 부분을 모아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배분적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하다. 집단이든 합이든 부분이 모여 덩어리가 된 것인데, 합만이 그렇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sup>8</sup> 그러나 그런 이론적인 문제보다는 실제 사용된 용례들이(세종말뭉치) 위와 같은 이론 전개의 문제를 보여준다.<sup>9</sup>

## (5) ‘일렬로’

- ㄱ. 바람 많은 제주도에서는 말을 [일렬로] 작대(作隊)시켜 흙을 밟게 하는데
- ㄴ. 길이 1cm에 원자를 [일렬로] 배열했다고 가정하자. 몇 개의 원자가 필요할까?
- ㄷ. 아파트의 창이 일시에 눈을 압도했다. 똑같은 창이 [일렬로] 서서 무엇인가 안으로 삼키고 있는 듯했다.

<sup>7</sup> ‘답다’의 용례는 대개 ‘을 답다’ 혹은 ‘와 답다’로 쓰이거나 수량사가 명시된 형식으로 쓰인다(‘두 사람이 /사람들이 답다’). (ㄱ) 예만이 전영철 (2007)의 완전한 반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들이 답다’의 용례도 별로 없다. 또한 ‘\*아이들이 각자 답았다’ 같은 명시적인 배분적 표현도 불가능하다.

<sup>8</sup> ‘덩어리’라는 말 자체의 모호성을 언급하는 것이지 합과 집단의 구분이 모호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합과 집단은 명백히 구별된다.

<sup>9</sup> 여기에서는 무표 복수형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다. (전 17)의 예에서 단수가 어색하다면 (필자는 그렇게 어색하게 느끼지는 않는다), 그것은 한정적 용법의 무표형이 단수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화용적 설명은 6절 마지막 부분 참조.



- ㄹ. 방과제의 전등불이 [일렬로] 줄을 지어 있는 송도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 (6) ‘동시에’

- ㄱ. 감각자극에 대하여 일군의 세포가 [동시에] 발화하는 것을 세포집합이라 하는데
- ㄴ. 오랫동안 권위주의에 억눌려온 욕구가 [동시에] 분출되는 상황에서
- ㄷ. 여러 가지의 이질적인 문화가 [동시에] 혼류되는 상황이다.
- ㄹ. 함축성은 그 말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경험이 [동시에] 재현될 때 성립된다.
- ㅁ. 두 가지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 ㅂ. 오늘은 예상치 않은 엉뚱한 인물이 [동시에] 집을 찾아왔다. 그 중에도 특히 인섭의 숙부인 박승학(朴勝學)은 무려 다섯 해 만에야 타처를 떠돌다가 집에 돌아온 사람이다.

이제 A 유형의 술어들을 논의하자. 전영철 (2007)은 집단적 술어 중 ‘모이다’와 같은 것은 그 내부 의미에 행동을 나타내는 요소(DO)를 갖는다는 Brisson (2003)의 이론을 받아들인다.<sup>10</sup> 행위의 DO는 Vendler (1967)의 상적 술어 부류 중 행위(action)와 완성(accomplishment) 부류에 있고, 상태(state)와 성취(achievement)에는 없는 의미 요소이다. 따라서 DO의 유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문장의 대조가 생긴다(다음은 Brisson의 예를 전영철이 가져온 것임).

(전13) ㄱ. All the boys carried the piano.

ㄴ. All the students gathered in the hallway.

ㄷ. \*All the students elected a president.

ㄹ. \*All the boys are a big group.

전영철 (2007)은 한국어에서도 완성 동사인 ‘모이다’, ‘홀어지다’는 행위의 DO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배분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예들을 더 제시하고 있다.

<sup>10</sup> 집단 술어 중 ‘gather’와 같이 배분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들과 ‘be a big group’과 같이 그렇지 않은 것들의 구별을 Dowty (1987)가 언급했었다.

(전 14) ㄱ. 각자 모여라.

ㄴ. 각자 흩어져라.

집단성 술어 중에서 행위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각자’와 같이 쓰인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들’ 복수형만을 합 그리고 배분성과 관련시키는 입장에서는 DO가 없는 성취 및 상태 술어는 ‘들’ 복수형과 쓰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동시에 주장되는 셈이다. 실제로 전영철은 다음의 예들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

(전 12) ㄱ. #공룡들은/공룡은 멸종했습니다.

ㄴ. #종업원들은/종업원은 큰 집단이다.

(전 12 ㄱ)은 종류에 관한 것이다. 한국어에서 종류는 무표형으로 표시된다. 전영철 (2007)이 Chierchia (1998)을 인용하면서 종류가 무표형으로 표시된다는 것이 무표형이 집단을 가리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Chierchia (1998)는 종류를 각 상황(세계)에서 그 세계의 모든 개체를 포함하는 최상위 복수 개체, 즉 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그것은 최상위 복수 개체와 종류의 관련성을 보여준 것이지 집단 혹은 합의 구분과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종류가 ‘들’ 복수형이 아니라는 사실이 합 혹은 집단과 관련된 어떤 주장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종업원들이 큰 집단이다’라는 예문에 대하여 전영철 (2007)은 다소 자신이 없이 다음과 같이 각주에서 진술한다.

“#종업원들은 큰 집단이다’에 대한 판단이 다소 유동적이어서 ‘들’-복수형이 허용되는 것 같기도 하다”. (전영철, 2007, 각주 4)

그는 단지 위 예문과 비교하여 ‘종업원들이 큰 집단을 형성하였다’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언급된 예문에 상관없이 실제 용례에서는 ‘들’ 복수형이 ‘집단이다’와 같은 상태 술어에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다(세종말뭉치).

(7) ‘집단이다’

ㄱ. 그들은 이미 1950 년대에 있어 한국 사회의 어느 다른 집단보다도 앞서 근대화한 [집단이었던] 것이다

ㄴ. 적발된 학생들은 그런 문제야 [집단이다.]

ㄷ. 장자학과 사람들은 당시의 현실 세력과 정치 문화의 중심에서 소외된 [집단이었습니다].

- ㄹ. 자본제 이전의 영국 사회에 있어 농민은 대개 낮은 계급성을 가진 집단이었던 반면, 산업 노동자들은 높은 계급성을 지닌 [집단이었다는] 것이다.

(8) ‘세력이다’

- ㄱ. 고급 공무원이나 일선 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의 대부분이 부정부패의 세력이었으므로
- ㄴ. 맞불 작전으로 말하자면 유도회원들도 만만치 않은 [세력이지요].

사실 강범모 (2007) 에서 언급된 ‘100 명이다’ 와 같은 예 (강22ㄹ. ‘(그 대학교에는) 교수들이 100 명이다’) 는 ‘집단이다’ 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 세종말뭉치에서 더 많은 예를 제시할 수도 있다.<sup>11</sup>

(9) ‘n 명이다’

- ㄱ. 점심을 먹고 간 아이들은 약 21 만 명이다.
- ㄴ. 세계무역센터에서 죽은 사람들이 3 천여 명이었다면,
- ㄷ. 이 때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1 만 3,500 여 명이었다.
- ㄹ. 창립식 때 이름을 건 목회자들은 30 대 초반부터 40 대까지 모두 75 명이다.
- ㅁ. 하인들은 모두 네 명이었다.
- ㅂ. 여행해온 학생들은 모두 아홉 명이었다.
- ㅅ.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열아홉 명이었다.

더욱이 Brisson (2003) 이 언급한 성취동사 ‘elect’ 에 대응하는 한국어 ‘선출하다’ 또한 행위의 DO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들’ 복수형이 가능하다(세종말뭉치).<sup>12</sup>

<sup>11</sup> 이 예들은 6200 만 어절의 세종말뭉치에서 찾은 것들 중 일부이다. ‘~ 명이다’의 구문에서는 ‘들’ 복수형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무표 복수형에 비하여 많지는 않다. 그것은 ‘~ 명이다’에 나타나는 수는 대개 명확한 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범모 (2007) 는 ‘들’ 복수형은 상대적으로 모호한 수에 많이 나타나고 무표 복수형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수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코퍼스에 기초하여 밝혔다. 따라서 명확한 수가 많이 쓰이는 ‘~ 명이다’ 구문에서 ‘들’ 복수형보다 무표 복수형이 많이 쓰이는 것은 강범모 (2007) 의 발견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sup>12</sup> 물론 무표 복수형과 ‘선출하다’가 잘 쓰인다.

- ㄱ. 특히 89 년과 90 년 조합장과 중앙 회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체제’로 바뀐 뒤에도
- ㄴ. 요약하면 선거는 민주 공화 양당이 각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과 유권자가 대통령
- ㄷ.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본선거 및 이들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나뉜다.

## (10) '선출하다'

ㄱ. 총장 직선제는 교수들이 총장 후보를 복수로 [선출하고]

ㄴ.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직접 국가 최고 통수권자를 [선출하고]

'선출하다'가 '모이다'와는 다른 종류의 집단적 술어라는 사실은 '\*교수들이 총장 후보를 각자 선출하였다'와 같은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로 드러난다. 이와 같이 '모이다', '홀어지다' 같은 집단적 술어들이 '선출하다', '집단이다'와 같은 집단적 술어와 구별된다는 사실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들' 복수형이 집단이 아닌 합을 가리킨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앞에서 제시한 실제 사용 예들을 보았을 때 집단적 술어의 구분과 두 가지 종류 복수형의 (배분성과 관련된) 의미 차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5. 부사적 '들'과 배분성

전영철 (2007)은 '들' 복수형이 합 및 배분성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부사적 표현에 붙는 '들' 또한 일종의 배분성을 표현함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이 이론은 Landman (1996)의 복수와 사건 이론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배분성이란 복수 술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집단성이란 단수 술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Parsons (1990)의 신데이비드슨 사건의미론을 받아들인 Landman 식으로 의미를 표상하면 다음과 같다(↑'는 집단 형성소).

여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전27) ㄱ. John sings

ㄴ. John and Mary sings.

가'.  $\exists e \in \text{SING} : \text{Ag}(e) = j$

나'.  $\exists e \in \text{SING} : \text{Ag}(e) = \uparrow(j + m)$  (단수적 사건 - 집단적)

나''.  $\exists e \in * \text{SING} : * \text{Ag}(e) = j + m$  (복수적 사건 - 배분적)

(전27ㄴ)의 'John and Mary'는 합과 집단의 두 가지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단수적(집단적) 사건 혹은 복수적(배분적) 사건을 지시할 수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 한국어의 문장과 그 의미표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전28) ㄱ. 사람이 와.

ㄴ. 사람들이 와.

ㄷ. 아이들이 물을 잘들 마셔.

ㄱ'.  $\exists e \in \text{COME} : \exists x \in \text{MAN} : \text{Ag}(e) = x$

ㄱ''.  $\exists e \in \text{COME} : \exists x \in * \text{MAN} : \text{Ag}(e) = \uparrow x$

ㄴ'.  $\exists e \in * \text{COME} : \exists x \in * \text{MAN} : * \text{Ag}(e) = x$

ㄷ'.  $\exists e \in * \text{DRINK} : \exists x \in * \text{KID} : * \text{Ag}(e) = x \wedge * \text{WELL}(e)$

‘사람’이 단수 개체와 집단을 지시할 수 있으므로 중의적이고, ‘들’ 복수형은 합을 가리키므로 복수적 사건에 관여한다. 여기서 부사 ‘잘’에 붙은 ‘들’은 명사에 붙은 ‘들’과 같이 복수적 사건과 관련된다. 물론 부사적 ‘들’이 없더라도 (전28ㄴ)처럼 복수적 사건이 표시될 수 있다. 부사적 ‘들’은 단지 이미 존재하는 복수적 사건을 확인할 뿐이다.

이러한 분석은 부사적 ‘들’이 배분성을 나타낸다는 일반적 관찰에 근거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로 모든 부사적 ‘들’이 배분적 술어와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들은 부사적 ‘들’이 진정한 비배분적 (상태) 술어와도 쓰인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3</sup>

(11) ‘어울리다’

ㄱ. 꽃들이 예쁘게들 어울린다.

ㄴ. 그 두 사람은 잘들 어울린다.

ㄷ. 그 아이들이 잘들 어울린다.

부사적 ‘들’에 관한 자세한 실제 사용 예 관찰과 이론적 탐구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6. 무표형은 복수가 아니라 오로지 단수인가?

지금까지 한국어의 무표 명사형은 단수와 복수로 모두 쓰일 수 있는데, 무표 복수형 (즉 무표형이 복수로 쓰일 경우)이 ‘들’ 복수형과는 달리 합 (배분적)이 아닌 집단 (집단적)을 가리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논박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바탕에는, 무표형은 단수로

<sup>13</sup> 전영철 (2007) 입장에서는 ‘어울리다’는 상호적이므로 배분적이다. 하지만 상태를 나타내는 ‘어울리다’가 신데이비슨 논리식으로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

쓰이기도 하고(‘한 사람’) 또 복수로 쓰이기도 한다는(‘열 사람’)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노은주(2008)는 이러한 기본 전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무표형은 복수가 아니라(즉 복수로 쓰이지 않고) 단수라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그 논문의 결론 부분에 요약되어 있다(노은주, 2008, 60).

(12) 노은주(2008)의 주장

- ㄱ. 무표형 명사는 단수를, ‘들’ 명사형은 복수를 의미한다.
- ㄴ. 세종말뭉치를 보면, 수량 표현이 없는, 무표형만으로 된 명사구가 복수형의 의미로 잘 쓰이지 않는다.
- ㄷ. 수사와 복수 표지는 함께 잘 쓰이지 않는다. 수사가 복수 표지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므로, 수사가 있는데, 복수 표지를 쓰는 것은 더 이상의 인지 효과 없이 처리 노력만 부과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길게 논의해야 하므로, 세 번째 주장부터 논박하도록 한다.

우선 수사와 복수 표지가 수사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는 주장(12ㄷ)은 약 40만 어절(정확히 392,547어절)의 현대 문어와 구어에서 ‘두’+‘들’ 복수형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관찰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이미 강범모(2007)에서 밝혀 놓았듯이 1000만 어절의 세종말뭉치에서 다음과 같은 ‘두’+‘들’ 복수형 형식이 100회 가량 출현한다.

(강41) 두 - 강대국들, 계집아이들, 교사들, 귀들, 나라업자들, 낚시꾼들, 남동생들, 년놈들, 노인들, 노인들, 놈들, 도둑들, 동맹국들, 동무들, 동생들, 말들, 명장들, 명제들, 별님들, 상권들, 색기들, 서형들, 선생들, 손들, 쇠전꾼들, 아이들, 어른들, 어른들, 언니들, 여동생들, 여자들, 연기파들, 연놈들, 연인들, 예언자들, 오라비들, 외국인들, 요소들, 운전사들, 인간들, 일들, 작가들, 장정들, 저작들, 젊은이들, 청년들, 출두자들, 커플들, 콤피들, 학자들, 형들, 후배들,

위 자료를 제시했던 이유는 백미현(2002)이 셋 이상의 수와는 달리 ‘두’와 ‘들’ 복수형의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백미현도 이미 셋 이상의 수에서 ‘들’ 복수형이 가능함을 인정하였고, 물론 코퍼스에서 그 용례들이 출현한다. 사실상 수사와는 ‘들’ 복수형보다 무표형(무표 복수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점은 백미현(2002), 강범모(2007)에서 이미 지적하였고, 또한 그 설명을 수사의 개별화 기능과 ‘들’의 기능이 중복됨으로써 발생하는 잉여성의 회피라는 기능적 설명을 제시하였었다. 노은주(2008)가 인지적 처리 노력(12ㄷ)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 백미현(2002), 강범모(2007)의 기능적 설명과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12ㄷ)의 주장이 수사와 ‘들’ 복수형이 함께 쓰이지 못한다는 주장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단지 그러한

결합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것은 인지적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주장이라면, 그것은 강범모 (2007)의 주장과 다른,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 코퍼스에는 무표형 단독으로 복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주장 (12ㄴ)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주장은 약 48만 어절의 코퍼스의 코퍼스에서 ‘시위하다’와 ‘모이다’의 용례 54개 중 수량 표현이 없는 무표형이 2개뿐이라는 관찰에 근거한다(노은주, 2008, 54-56). 그 두 개의 예외는 ‘조각’과 ‘작품’인데 “이들은 모두 ‘들’-복수형으로 잘 쓰이지 않는 유정성이 낮은 명사들”(노은주, 2008, 56)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이러한 관찰은 문제가 있다. 앞에서 ‘서로’, ‘일렬로’, ‘동시에’ 등의 예에서 단독으로 사용된 무표 복수형을 예를 많이 보았다. 더욱이 ‘집단이다’, ‘세력이다’, ‘n명이다’ 등의 용례는 무표 복수형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나아가 전영철 (2007)이 무표 복수형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들’ 복수형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예들이었다. 세종말뭉치에서 무표 복수형 주어가 ‘n명이다’와 쓰인 예만을 몇 개 들어 보아도 다음과 같은 많은 용례가 있다.

(13) ‘n명이다’

- ㄱ. 이 회사는 ... 종업원은 1천 5백 [명이다.]
- ㄴ. 하루 출입하는 고객이 2만 5천 [명이다.]
- ㄷ. 이때 동원된 조선측의 군사는 모두 5천여 [명이었다.]
- ㄹ. 소재파악중인 사람은 자수모임에 참석한 구원과 서울교회 교육부장 손영수씨 (41) 등 6 [명이다.]
- ㅁ. 이날 수상자는 전원책(시) 김태자(시조) 문명래(동화) 조기호(동시) 송희복(문학평론) 이국민씨(희곡) 등 6 [명이었다.]
- ㅂ. 위반 등의 혐의로 추방시킨 외국인인 모두 1천 1백 46 명으로 이중 불법 취업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인 4백 6 [명이었다.]
- ㅅ. 털로 뒤덮인 매머드를 발굴하는 작업을 추적한 ‘맘모스 깨우기’를 본 사람은 1010 만 [명이었다.]
- ㅇ. 우리 학교 학생은 600여 [명이다.]

따라서 상당히 작은 코퍼스(약 48만 어절, 이중 현대어는 약 18만 어절)에서 ‘시위하다’와 ‘모이다’의 예문만을 찾아 무표형이 복수로 잘 쓰이지 않는다는 주장(12ㄴ)을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유정성이 낮은 명사들은 ‘들’ 복수형이 안 쓰이므로 무표형이

복수로 쓰일 수 있다는 노은주의 주장도 잘못된 것이다. 비유정성 명사에 ‘들’이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들’이 쓰인 것도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정성 명사만 ‘들’ 복수형이 가능하고 비유정성 명사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비유정성 명사의 무표형이 복수의 의미로 쓰인 것이 한국어 명사의 무표 복수형의 존재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없다.

노은주 (2008)가 지금까지 논의한 두 가지 주장(12ㄷ, 12ㄴ)에서 무표 복수형이 “잘” 쓰이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사실이 위에서 제기한 반론들을 비껴가게 할 수는 없다. 우선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코퍼스 용례 조사에서 문제가 있고, 또한 무표형이 단수 의미이고 그것이 복수로 “잘” 쓰이지 않는다면(이는 필자의 표현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경우’보다 더 부정적이다), 그 잘 안 쓰이는 경우의 무표 복수형을 설명할 방도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노은주 (2008)의 첫 째 주장이자 가장 중요한 주장인, 무표형이 단수를 ‘들’ 복수형이 복수를 의미한다는 단언(12ㄱ)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러한 주장을 위하여 노은주 (2008)는 우선 Kwak (2003)과 전영철 (2004)의 주장, 즉 무표 복수형이 집단을 가리키고 따라서 무표형이 단수와 집단 의미의 중의성을 가진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그 근거 논점에 대하여 완전히 공감하지는 않으나 여기서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일단 이 논문의 앞부분에서 이미 필자 나름으로 무표형을 중의적으로 보는 주장의 문제점을 밝혀 놓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노은주 (2008)는 강범모 (2007)의 주장 즉 무표형이 (단수뿐 아니라) 복수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반박한다. 그러한 노은주의 주장 근거 중에는 (12ㄴ)과 (12ㄷ)도 있는데, 그것들은 이미 앞에서 충분히 반박하였다. 다른 근거들을 살펴보자.

노은주 (2008)는 우선 강범모 (2007)에서 사용되었던 (강12)의 예를 논의한다 (반복 제시).

- (강12) ㄱ. 학문을 하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가 하는 학문의 의의와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제 연구의 방법을 바로잡고자 한다.
- ㄴ. 일찍 들어오는 사람은 [각자] 알아서 밥도 차려 먹고 설거지도 하고 또 비싼 사람 위해서 커피도 끊여주고....
- ㄷ. 국민 [각자] 각자가 행사나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허리를 구부러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의 주연 배우’로 변해야 한다는 취지다.
- ㄹ. 30리 떨어진 수덕사 소풍길도 전교생이 [각자] 먹을 쌀을 싸매고 걸어갔다.

이러한 예들은, 전영철 (2004)이 무표 복수형이 ‘각자’와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하여, 실제로 무표 복수형이 ‘각자’와 사용될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제시한 것이었다.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위 예문들에는 양화적 요인(‘모든’, ‘전-’, 집합적 ‘국민’)이 있는데 이것은 전영철 (2007)도 이미 지적했었고, 그것을 노은주 (2008)도 다시 지적했다. (강12ㄴ)도, 노은주 (2008)가 주장하듯이 Donnellan (1966)의 속성적 용법(attributive use)이든, 혹은 담화표상이론에서 단수형이 조건절에서 변항으로 표상되고 그것이 주절의 양화(빈도 부사 등)에 결속되어 전칭적으로 해석되든, 반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강범모 (2007)의 다른 예문들은, 전영철 (2007)과 마찬가지로, 노은주 (2008)도 설명할 수 없다(반복 제시).

(강13) 그새에 나는 맥주가 많이 생겼다고 박물관 [직원에게 한 병 반씩] 나누어 먹이고 나서 한 병도 남은 것이 없어 웃은 일이 있습니다.

(강14) 교장이 우등생에게 상품을 하나씩 주었다.

‘씩’과 관련하여 노은주 (2008)는 Kwak (2003), 전영철 (2004) 등이 제시한 예는 다음과 같은 예도 언급한다(반복 제시).

(강8) 학생들이/#학생이 각자 선생님께 질문을 했다.

(강9) 엄마가 아이들에게/#아이에게 풍선을 하나씩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은주는 구두 발표에서<sup>14</sup> 다음 예를 추가하여 논의하였다.

(노’26) 이 상자의 사과에는 노란 상표를 하나씩 붙이세요.<sup>15</sup>

이 예문을, 앞의 (12ㄴ)에서 유정성을 언급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정성의 문제와 관련시켰다. 즉 사과는 비유정적이고 ‘들’이 잘 붙지 않기 때문에 무표형으로 ‘씩’과 공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강범모 (2007)는 이미 무표형이 한정적으로 쓰이면 단수 개체를 가리키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단수적 해석이 ‘씩’과 공기에서 문제이며, 따라서 무표형이 복수로 해석되면 ‘씩’과의 공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었다.<sup>16</sup> (강13), (강14)의 예가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노’26)도 마찬가지이다. 복수의 개체가 명백한 이상 ‘씩’과 공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 물론, 노은주의 주장과 달리, 유정성/비유정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7. 무표형의 화용적 해석 (합축)

마지막으로, 강범모 (2007)가 무표형이 단수와 복수 모두를 가리킬 수 있지만(즉, 무표형의 의미는 단수 개체와 복수 개체 모두를 포함한 집합이지만), 무표형이 홀로 쓰일

<sup>14</sup> 한국언어정보학회 2008년 정기학술대회, 2008.6.20. 논문집, 85-93.

<sup>15</sup> 이 예문 번호와 예문은, 노은주 (2008)가 아닌, 언어정보학회 발표논문집에 있는 것임. 이 예문과 그것에 대한 논의는 노은주 (2008)에는 나오지 않는다.

<sup>16</sup> 잠시 후 이러한 화용적 추론에 관하여 자세히 논의함.

경우 대개 단수적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화용적으로 해석한 것에 관한 노은주 (2008)의 반론이 있다. 사실 이것은 무표 복수형(무표형의 복수적 사용)이 집단과 합의 구분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주장한 5절 이전의 논의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러나 노은주 (2008)는 무표형의 복수적 의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므로 그것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

강범모 (2007)는 무표형이 홀로 쓰일 때에 복수보다는 단수로 해석되는 경향을 양의 격률에 따른 함축, 특히 척도상의 함축 (scalar implicature)으로 보았다. 그것은 ‘셋’이 논리적으로는 셋 이상을 가리키지만, 실제 사용에서, 만일 실제로 넷 이상이면 그렇게 표현해서 충분한 정보를 주었으리라는 가정에서, 정확히 셋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함축으로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주장은 다음과 같다.

- (14) “화자가 무표형을 사용할 경우, 복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충분히 정보적인 ‘들’ 복수형을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청자는 화자가 무표형으로 단수를 나타냈을 것이라는 것을 추론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강범모, 2007, 26)

이러한 화용론적 설명은 한국어에서 무표형이 단수와 복수를 모두 지시할 수 있고, ‘들’ 복수형이 복수만을 지시할 수 있으므로, 한국어의 무표형과 ‘들’ 복수형이 정보의 양의 척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강범모 (2007)는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여 함축이 취소될 수 있음을 보였다.

(강45) 그가 사과 세 개를 먹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네 개를 먹었다.

(강46) 아이가 놀고 있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아이 여러 명이 놀고 있다.

이것에 대한 노은주 (2008)의 반론은 다소 세밀하다. ‘세 개’에서 함축된 것은 ‘정확히 세 개’가 아니라 ‘세 개보다 많지 않다’이며 (강45)에서 취소된 것은 바로 ‘세 개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이다. 아울러 (강46)의 함축은 ‘하나보다 많지 않다’이고 그것이 취소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따라서 ‘아이가 놀고 있다’에서 ‘아이’의 의미는 ‘한 아이’이고 함축된 것은 ‘하나보다 많지 않은 아이’이므로, 기본적으로 ‘아이’의 의미는 ‘한 아이’ 즉 단수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노은주의 반론은 매우 섬세한 것 같지만 반론이 가능하다. 만일 함축된 것이 ‘하나보다 많지 않다’라면 결국 ‘정확히 하나’라는 것도 따라 나온다고 볼 수 있고(후자를 직접적 함축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다), ‘하나보다 많지 않다’를 취소하면 결국 ‘정확히 하나’도 취소된다. 강범모 (2007)에서 ‘정확히 하나’를 함축으로 부른 것은 ‘하나보다 많지 않다’를 함축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아울러 노은주가 ‘아이’의 의미가 ‘한 아이’라고 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한 아이’ 혹은 ‘one boy’가 둘 이상의 개체가 관련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고 하지만(예: 아이 두 명이 놀고 있을 때, ‘아이 한 명이 놀고 있다’는 참이다), 그것은

‘아이’가 단수적 상황과 복수적 상황에 쓰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 사실은 집단적 술어 구문에서 명백하다. ‘아이가 열 명이다’와 비교하여 ‘#한 아이가 열 명이다’는 명백히 잘못된 진술이다. 또는 아이 백 명이 있을 때 ‘#한 아이가 많다’라고 할 수 없다.

사실 이러한 논의에는 약간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영어에서도 ‘one boy’의 논리적 의미는 ‘하나 이상의 소년’이고, 함축적 의미 때문에 ‘정확히 한 소년’(‘둘 이상의 소년이 아님’)의 의미가 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어나 영어나 동일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영어의 경우 단수 명사는 단수 개체들의 집합, 복수 명사는 복수 개체들의 집합이고, 한국어는 무표형 명사는 단수 개체 및 복수 개체들의 집합, ‘들’ 복수형 명사는 복수 개체들의 집합을 지시한다. 영어에서 ‘one boy’가 함축으로 ‘exactly one boy’의 의미로 해석되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우선 <아이들, 아이>의 척도를 기반으로 ‘아이’가 (복수 개체들을 포함하지 않는) 단수 개체들의 집합으로 해석(함축)되고, 이차적으로 그 집합의 어떤 원소가 단수 개체, 즉 정확히 하나의 개체이다. 그것은 두 단계이지만 결과적으로 효과는 영어의 ‘one boy’와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국어와 영어와의 차이는, 한국어의 ‘아이’는 복수 개체를 지시하기 위하여 쓰일 수 있지만, 영어의 ‘boy’는 복수 개체를 지시하기 위하여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집단적 술어와 관련하여, 한국어에서 ‘아이가 열 명이다’가 가능한 반면, 영어에서 ‘#One boy is/are ten’이 불가능하고 그것은 ‘#한 아이가 열 명이다’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상의 논의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영어에 <n, ... four, three, two, one>, 한국어에 <n, ... 넷, 셋, 둘, 하나>의 척도가 있고, 영어의 ‘one’이 ‘not more than one’(궁극적으로 ‘exactly one’)을 함축하는 것처럼, 한국어의 ‘하나’(혹은 ‘한 학생, 학생 한 명’)도 ‘하나보다 많지 않음’(궁극적으로 ‘정확히 하나임’)을 함축한다. 강범모(2007)는 이러한 수 표현의 척도를 척도상의 함축의 한 예로 제시하였지만, 노은주(2008)는 사실상 수 표현의 척도를 복수형/무표형의 척도와 동일시하여 논의한 것이다. 그러나 <복수형, 무표형>의 척도는 영어에는 없고 한국어에만 있다. 왜냐하면 영어의 ‘student’가 ‘students’의 의미를 가질 수 없지만, 한국어의 ‘학생’은 ‘학생들’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한국어에는 <학생들, 학생>의 척도가 있어 ‘학생’이 (논리적으로 ‘학생들’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고) ‘학생들이 아니다’를 함축하는 반면, 영어는 <boys, boy> 같은 척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영어와 달리 한국어의 무표형이 단수와 복수를 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즉 <‘들’ 복수형, 무표형>의 척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무표형의 복수 의미 용법으로 증명되며, 그 입증 근거는 앞에서 이미 충분히 제시하였다. 함축의 강화와 취소도 <‘들’ 복수형, 무표형> 척도와 그로 인한 함축의 증거가 된다(취소의 예는 앞의 (강48)도 있음).

(15) ㄱ. 학생이, 학생들이 아니라 학생이, 뛰어가고 있다. [함축 강화]

#### ㄴ. 학생이, 정확히 말하자면 학생들이, 뛰어나고 있다. [함축 취소]

함축의 문제와 관련하여, 노은주 (2008)가 ‘그 학생, 이 아이’ 등 한정사와 무표형이 결합한 경우 복수적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 강범모 (2007)의 화용적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강범모에는 다음과 같이 한정사와 결합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학생’이나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학생’이 단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학생’의 경우는 거의 문법화 되어 있다.”(강범모, 2007, 26)

즉, 한정사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무표형의 단수적 해석이 거의 고정된 것을 ‘문법화’로 파악한 것이다. 완전히 단정을 하지 않고 ‘거의’라는 말을 쓴 것은 임흥빈 (2000), 전영철 (2004) 등이 ‘이 국회의원’과 같은 표현을 복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극히 예외적으로 복수적 사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점에 대하여 필자의 직관은 불확실하다.).

지금까지 강범모 (2007)에 대한 노은주 (2008)의 반론(127~131)을 반박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어 명사의 무표형이 단수만을 가리킨다는 주장을 하려면, 앞에서 제시하였던 수많은 무표형의 복수적 사용(무표 복수형) 용법을 설명하는 기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사과 열 개, 열 개의 사과, 두 사람, 세 학생’ 등 기본적인 복수 의미 구문에서의 무표형 사용에 대한 이론이 필요한데, 노은주 (2008)는 이에 대하여 침묵한다.<sup>17</sup>

## 8. 결론

이 글에서는 한국어 무표 복수형과 ‘들’ 복수형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Kwak (2003), 전영철 (2004)에서 무표 복수형이 집단을 지시하고 ‘들’ 복수형이 합을 지시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강범모 (2007)는 그러한 주장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전영철 (2007)은 다시 그것에 반론을 했고 이 논문은 재반박인 셈이다. 무표 복수형이 집단을 지시하고 따라서 그것이 집단적 의미로만 쓰인다는 것을 양화 현상에 기대어 완화한다든지, ‘들’ 복수형이 합을 지시하고 따라서 그것이 배분적 의미로만 쓰인다는 것을 집단적 술어의 종류를 세분하여 완화하는 전영철 (2007)은 방식은 한 단계 나아간 것이지만 수많은 반례에 부딪친다. 지금까지의 자료 관찰과 논의로 볼 때 무표 복수형이 집단을 가리키고 ‘들’ 복수형이 합을 가리킨다는 주장은 더 이상 근거를 갖지 못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노은주 (2008)는 강범모 (2007)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반론을 제기하였다. 즉 무표 복수형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무표형은 단수이고

<sup>17</sup>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언어정보학회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질의한 홍민표 교수도 지적하였다.

‘들’ 복수형만이 복수로 해석된다는 노은주 (2008)의 주장은 자료와 이론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였다. 결국 한국어의 일반 명사에 관한 한, 무표형은 단수와 복수를 모두 지시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즉 무표 복수형에 비하여 ‘들’ 복수형이 좀 더 개별적이고 따라서 유표적인 복수형이라는 강범모 (2007)의 주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강범모 (2007)	전영철 (2007)	노은주 (2008)
이전의 관련 연구 (유사 주장)	Kang (1994) 강범모 (1999)	전영철 (2004) Kwak (2003)	
상호 관련성	전영철 (2004) 입장에 대한 반론	강범모 (2007)에 대한 반론	강범모 (2007)에 대한 반론
‘들’ 복수형의 의미 (예: ‘아이들’)	복수: 합과 집단으로 해석 가능	복수-합	합/집단에 대한 언급 없음
무표형의 의미 (예: ‘아이’)	하나의 의미: 단수, 복수(합, 집단)로 해석	중의적: 1) 단수 2) 복수-집단	단수
각 논문의 주장의 근거	‘들’ 복수형이 배분적, 집단적 술어와 사용되고, 무표 복수형(무표형의 복수적 사용)이 배분적, 집단적 술어와 사용된다. 무표형은 화용적으로 단수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고(최도상의 함축) 이 경우 배분적 사용이 어색하다.	단순히 ‘들’ 복수형과 배분성, 무표 복수형과 집단성을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반례를 다음과 같이 피할 수 있다. 즉, 상호적 술어와 집단적 행동 술어는 내재적인 행동성 혹은 배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 복수형과 공기 가능하다. ‘n명이다’ 등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표 복수형과만 공기한다.	48만 어절 코퍼스에서 ‘시위하다’와 ‘모이다’의 주어로 나타나는 무표형이 복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별로 없다. 무표형이 단수로 해석되는 경향을 척도적 함축으로 해석한 강범모 (2007)의 논의는 오히려 무표형이 단수라는 것을 드러낸다.
문제점 (본 논문의 지적)		세종말뭉치(1000만 어절)에 나타나는 실제 용례에서 반례들이 많이 나온다. 즉, 상호적 술어가 무표 복수형과 나타날 수 있고, ‘n명이다’도 무표 복수형의 술어로 나타난다. 또한 강범모 (2007)에서 제시한 반례들 중 일부도 설명하지 못한다.	작은 코퍼스에서 두 개의 집단 술어를 조사한 결과로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실제 코퍼스에 복수로 사용된 무표형 예가 많이 나온다. 척도상의 함축과 관련하여 <n, ... 셋, 둘, 하나>의 척도와 <‘들’ 복수형, 무표형>의 척도를 혼동한다.

## &lt; 참고문헌 &gt;

- Brisson, C. 2003. Plurals, All, and the Nonuniformity of Collective Predication. *Linguistics and Philosophy* 26, 129-184.
- Chierchia, Genaro. 1998. Reference to Kinds across Language. *Natural Language Semantics* 6, 339-405.
- Chung, Sandra. 2000. On Reference to Kinds in Indonesian. *Natural Language Semantics* 8, 157-171.
- Corbett, Greville C. 2000. *Numb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Donnellan, Keith. 1966. Reference and Definite Descriptions. *Philosophical Review* 75, 281-304.
- Dowty, David. 1987. A Note on Collective Predicates, Distributive Predicates, and 'All'. In *Proceedings of the Third ESCOL*, pp. 97-115.
- Gillon, Brendan. 1987. The Readings of Plural Noun Phrases in English. *Linguistics and Philosophy* 10, 199-219.
- Haspelmath, Martin. 2005. Occurrence of Nominal Plurality. In M. Haspelmath, M.S. Dryer, D. Gil, and B. Comrie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pp. 142-145. (2005).
- Heim, I., H. Lasnik, and R. May. 1991. Reciprocity and Plurality. *Linguistic Inquiry* 22, 63-101.
- Kang, Beom-mo. 1994. Plurality and Other Semantic Aspects of Common Nouns in Korea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3.1, 1-24.
- Kwak, Eun-Joo. 2003. Interpretations of Plural Phrases. *Korean Journal of the LSK (언어학)* 35, 3-36.
- Landman, Fred. 1989. 'Groups, I, II'. *Linguistics and Philosophy* 12, 559-605, 723-44.
- Landman, Fred. 1996. Plurality. In Lappin (ed.),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Blackwell, Oxford, pp. 425-457.
- Landman, Fred. 2000. *Events and Plurality*. Kluwer, Dordrecht.
- Laserson, Peter. 1995. *Plurality, Conjunction and Events*. Kluwer Academic Press, Dordrecht.
- Lin, Jo-Wang. 1998. Distributivity in Chinese and Its Implications. *Natural Language Semantics* 6, 201-243.
- Link, Godehard. 1983. The Logical Analysis of Plurals and Mass Terms: A Lattice-theoretical Approach. In R. Bäuerle, C. Schwarze, and A. von Stechow (eds.), *Meaning, Use, and Interpretation of Language*. de Gruyter, Berlin, pp. 302-323.
- Nakanish, Kimiko and Satoshi Tomioka. 2004. Japanese Plurals are Exceptional.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3, 113-140.
- Parsons, Terence. 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A Study in Subatomic Semantics*. The MIT Press, Cambridge.
- Schwarzschild, Roger. 1989. Against Groups. In *Proceedings of the Seventh Amsterdam Colloquium*, pp. 475-493, Amsterdam. ILLC.

- Schwarzschild, Roger. 1996. *Pluralities*.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 Vendler, Zeno.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Ithaca.
- 강범모. 1999. 양화 의미: 복수, 물질, 타입. 강범모 외 공저 *형식의미론과 한국어 기술에서*. 한신문화사, 서울, 114-156 쪽.
- 강범모. 2007. 복수성과 복수표지: '들'을 중심으로. *언어학* 47, 3-31.
- 노은주. 2008. 한국어의 무표형과 '들'-복수형의 의미. *담화와 인지* 15.1, 43-62.
- 백미현. 2002. 한국어 복수 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 9.2.
- 이남순. 1982. 단수와 복수. *국어학* 11, 117-141.
- 임홍빈. 2000. 복수 표지 '들'의 사건성. *애산학보* 24, 3-50.
- 전영철. 2004. 한국어의 복수성과 총칭성/한정성. *언어와 정보* 8.2, 27-45.
- 전영철. 2007. 한국어 복수 표현의 의미론: '들'의 통합적 해석. *언어학* 49, 325-347.

접수 일자: 2008년 5월 6일

게재 결정: 2008년 12월 8일